

*미래를 내다보기

몇해를 지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돌보시는 지를 상기 시켜 드렸지만, 오늘은 영적 연습을 함으로써 그것을 여러분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도전합니다.

- 사순시기 광야의 체험의 일환으로, 여러분은 자신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낙담하고, 여러분을 끌어 올리기 위해 외부 요인에 너무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명상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 묵상: 우리는 삶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래로 데려 가시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선을 이끌어 내실지 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한때 자녀들을 걱정했지만, 그 후, 기도 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셨고, 그것이 그녀에게 그들을 계속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또 제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데, 기도 중,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분께서 이것으로 부터 좋은 것이 오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 몇 주 전, 낙태 반대주의자들에 의해 축하받는 감동적인 광고가 있었습니다: 장애아라고 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기독교 부부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한 아이를 입양하고, 하느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대단할 거예요.” 라며 고통을 넘어 앞을 내다보는 어머니의 자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fqWG5_7nwyk to 0:54).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변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마르9:2). 영적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 사도들을

데려 간 것은, 예수님께서 겐세마니 동산에서 피를 흘리며 있을 때, 이 세
사람만이 예수님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유혹될 것이므로,
미리 그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 주시면서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Cf. CCC
556).

-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라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마르9:2-3). 예수님께서 잉태 되시고 인간의 본성을 띠었을 때,
그분의 신성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순간,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그분의 얼굴과 옷에서 말 그대로 빛나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중에, 너희는 나의 고난을 볼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믿어라. 내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 오늘 미사 중, 우리는 서분에서 이 말을 들을 것입니다. “
성스러운 산 위에서 그분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열정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끈다.” 그러나 변모가
부활만큼 강하지는 못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변모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이
고통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하는 소리가
났다!”(마르9:7).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느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구름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강화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10분에서 1시간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 세 단계가 있습니다: 1) 위치:평소에 잘 가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나요? 산, 물가, 공원으로 갑니다. 변모처럼,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가라 앉히고 편안한 자세를 잡으십시오.

2) ‘변모’의 이 구절을 상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르9:2-8. 이 산에 오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http://www.orthodox-canada.com/wp-content/uploads/2018/08/Mount-Tabor.-The-earliest-identification-of-the-Mount-of-Transfiguration-as-Tabor-is-by-Origen-in-the-3rd-century.jpg>;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f/ff/COLOR_PHOTO_OF_MOUNT_TABOR_TAKEN_IN_THE_LATE_19TH_CENTURY_BY_FRENCH_PHOTOGRAPHER%2C_BONFILS._19th_צילום צבע מסוף המאה ה-19 של הצלם הצרפתי בונפיס אשר תעד במצלמה

[D311-041.jpg](http://www.orthodox-canada.com/wp-content/uploads/2018/08/Mount-Tabor.-The-earliest-identification-of-the-Mount-of-Transfiguration-as-Tabor-is-by-Origen-in-the-3rd-century.jpg)). 여러분이 힘겨워하는 것을 무엇이든

예수님께 이야기 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https://novalisseedsoffaiith.files.wordpress.com/2019/08/screenshot-2019-08-06-10.21.57.png>). 그런 후

여러분 앞에서 변모하신 그분을 보십시오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7/7b/Transfiguration_bloch.jpg). 그분의 얼굴, 그분의 옷을

보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그분께서 보여주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십시오. 그분은 아마

인내하는 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꾸라고 하실

지도 모릅니다.

- 그리고 여러분 위에 있는 구름을 보고, 아버지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더 살아갈 것을 요구하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3) 우리가 제1 독서에서 들은 아브라함의 이 말씀으로 기도를 마치십시오.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창세22:8).

저는 여러분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지에 대한 예를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직접 그것을 해 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단한 한 예로 끝낼까 합니다. ‘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의 순교’로 흔히 알려진 마카베오기 하권 7장의 슬프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은 “그때에 어떤 일곱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 끈으로 고초를 당하며, 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임금에게 받는 일이 있었다”(7:1). 이것은 기원전 175년 경 그리스 통치자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을 금지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첫째 형은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안티오크스 왕은 그의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를 고문하여 죽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같은 방법으로 둘째를 고문합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이 사악한 인간, 당신은 우리를 이송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오”(7:9). 세째가 고문자들에게 끌려 갔을 때, 그는 그의 손을 내 뻗으며, “이 지체들을 하늘에서 받았지만,, 그분에게서 다시 받으리라고 희망하오”(7:11). 그들은 모두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7:12) 여겼습니다. 넷째가 죽을 때도 비슷하게 말하고, 그 후 그들은 다섯째와 여섯째도 죽였습니다.

- 본문에는, “특별히 그 어머니는 오래 기억될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일곱 아들이 단 하루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견디어 냈다”(7:20).
- 임금은 그 여자에게 분개하여, 일곱째와 막내아들에게 번성과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본문에는, “아들에게 몸을

기울이고, 조상들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는 아홉달 동안 너를 배 속에 품고 다녔고 너에게 세 해 동안 젖을 먹였으며... 기르고 키우고 보살폈다. 애야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그분의 자비로 네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7:27-29). 아들은 어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당신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요?” 그래서 왕은 그를 처형하고,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도 아들들의 뒤를 이어 죽었다”(7:41).

이 이야기는 항상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는 종종 두려움, 망설임, 꺼림칙함으로 가득하지만, 어떤것도 저를 진정으로 해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권능과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면, 그곳이 나도 갈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예수님께 의지하면 우리도 그 같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보기 때문에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 찬미 예수님

2월27/28 일 저스틴 신부님의 강론이었습니다. 모두 성령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모두 기도중 낙태종식에 대해 한번쯤 묵상해 보시고, 원하시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낙태종식을 위한 기도문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생명을 주시는 분도,

거뒤편하시는 분도 오직 하느님 한 분임을 온 세상이
깨닫게하소서.

6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당신의 은총도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인간의 잘못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태아들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낙태의 위험 앞에 놓인 모든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낙태의 유혹에 빠진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
죽음의 문화를 물리치고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게 하소서.

태아들의 수호자이신 과달루페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